

2-2-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히브리서 4:4-11

말씀제목: 일곱째 날에 영원히 안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옛 뱀 사탄 마귀가 죄와 사망과 저주를 세상에 가져온 이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쉬시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들이 되시는도다. 낮의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지키시리로다.”(시 121:1-8)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이 땅을 차지하여 세상의 통치자가 된 후 지난 육천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자신이 세상을 넘겨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눅 4:5-8)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창 2:1-3)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벧후 3:8)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 일곱째 날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 있으나 먼저 복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 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히 4:4-11)

사도 바울은 앞으로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아닌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이 일곱째 날에 있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창세 후 육천년이 지났습니다. 육 일이 지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일곱째 천년이 시작될 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 년 동안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육천 년 동안 마귀로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되는 일곱째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천 년 왕국이 오게 될 때에 비로소 쉬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 환란 끝에 재림하셔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함께 쉬시는 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 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계 20:1-3)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창조 사역이 끝나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에서 쉬신 것은 앞으로 자신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곱 번째 천 년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천 년 왕국에 있게 되는 일들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림 가운데서 잠자리라.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면에 있는 곳들을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리니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리라.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한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멧줄은 쥐고 그들로 자신들을 섬기게 했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들이 다시는 이방에게 약탈물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땅의 짐승도 그들을 삼키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한 초목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배고픔으로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이방의 수치를 겪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 것이며 그들, 즉 이스라엘 집이 나의 백성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겔 34:23-30)

이 때에 휴거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내려온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계 5:10)

예수께서는 마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들어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열 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 므나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나니다.’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 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눅 19:12-19)

조만간 휴거 후에 데 환란이 끝나게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들과 함께 지상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므나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남긴 만큼 천 년 왕국에서 통치하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